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Present
수상내역	금상
작가	김유진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한 수원,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지는 슬픈 선물.

S# 1 공원, 낮.

벚꽃나무로 둘러싸인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수원(66)의 목에 걸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지만 무음으로 설정되어 울리지 않는다. 핸드폰 화면에 ‘ 남편’ 두 글자 떠있다.

S# 2 문방구 앞, 낮.

핸드폰으로 전화 걸고 있는 청우(66). 문방구 주인(여, 45) 밖으로 나온다.

주인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솜사탕 드려요?

청우 혼잣말로) 아이, 왜 안받아... (검지로 서툰게 통화종료 누르며) 두 개줘요.

주인 할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공원을 살피다 줄고 있는 수원을 발견한 청우, 빙그레 웃는다.

S# 3 공원, 낮.

벤치 뒤에 서서 수원의 손에 솜사탕 쥐어주는 청우.

청우 그만 자고 얼른 받아요. 나 혼자 두 갠 못 먹어.

솜사탕이 힘없이 떨어지고 수원이 어깨를 떨며 흐느낀다.

청우 (놀란) 여보, 왜 그래요?

천천히 일어나 뒤도는 수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타이틀 *present*

S# 4 거실, 아침.

세 개의 작은 액자가 탁자 위에 일렬로 놓여있다. 첫 번째 사진엔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수원. 두 번째엔 초등학생이 된 수원과 아기인 해원과 엄마. 세 번째엔 교복을 입은 무표정한 수원과 해원 있다. 도어락 소리 들리고 수원(26) 들어와 노트북 하는 해원(18)의 등짝 때린다.

해원 (등 문지르며) 아! 말로 해!
 수원 (팔짱끼고) 여덟시야. 얼른 준비해.
 해원 (노트북 보며) 이거 언니가 쓴 소설 맞지? (잠시 쉬고) 난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잘 쓰면서 왜 불지도 않는 면접에
 수원 (O. L) 시끄러. (노트북 덮고) 학교나 가세요.
 해원 (짜증난) 아 언니!

S# 5 방 안, 아침.

해원의 가방을 싸주던 수원. 구겨져 있는 급식비 미납 고지서를 발견하고 표정이 어두워진다. 수원의 핸드폰이 울린다.

수원 여보세요.

S# 6 거실, 낮.

화장실에서 불량한 복장의 해원이 전화를 하며 나온다.

해원 미안해~ 오늘따라 언니가 늦게 나갔어. 뭐? 당연히 언닌 모르지. 장난하냐.

신발장 옆, 가방과 교복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발로 툭 쳐서 쓰러뜨리고 나가는 해원.

S# 7 카페, 낮.

수원이 해원에게 문자 보내고 있다. ‘학교 도착했어? 방금 급식비 넣었다.’ 맞은편에 화려한 차림의 은정(26) 앉아있다.

은정 그래서 내가, (수원 핸드폰 보고)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수원 어? 아, 미안. 어디까지 말했어? (커피 마시는)
 은정 (기분상한) 뭐야. 너 심심할까봐 놀아주려고 불렀더니. 나 그저께 집 계약했어.
 수원 (커피 겨우 삼키고) 지, 집?
 은정 어, 집. 뭐 그렇게 크진 않아. 한 30평정도? 여자 혼자 살기에 적당하더라. (비밀스럽게) 근데 있지, 내가 괜찮다는데도 굳이 와서 이삿짐 정리해준 선배가 있다? 옆집 살고 키 183에 연봉 육천. 어때?

수원 선배? 학교선배?

은정 (비웃으며) 뭐래. 당연히 회사 선배지. 나 아빠회사 취직했잖아. (양 손을 볼에 대고) 요즘 맨날 야근해서 피부 까칠해진 것 좀 봐. 나도 너처럼 좀 더 놀다가 취직했으면 피부가 이렇게, (수원 볼 만지고 놀라는) 뭐야, 너 취직했어? 피부가 왜 이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은정을 쳐다보는 수원.

S# 8 홍대 길거리, 낮.

공연준비중인 해원의 밴드. 마이크 점검중인 해원의 핸드폰에 문자온다.

친구 (핸드폰 들고) 김해원~ 문자왔어. 근데 이름이 왜이래? 찌질이?

해원 (생수 들며) 냅뒀. 안 봐도 돼. (하고 물 마시는)

S# 9 면접장, 낮.

면접관(남, 50)이 수원과 진우(남, 28) 앞에 앉아있다. 심호흡 하는 수원.

면접관 (서류 보며) 김수원씨는...서류심사를 어떻게 통과했지?

수원 (어리둥절한) 네?

면접관 (헛기침하고) 아니에요. 조금 이따 질문하도록 하죠. (서류 바꿔들며) 강진우씨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그런지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네요. 이번에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바닥만 보고 있는 수원. 면접관과 진우 계속해서 대화 나누지만 들리지 않는.

면접관 김수원씨. (크게) 김수원씨!

수원 (고개 확 들며) 네!

면접관 (귀찮은) 면접 끝났습니다. 나가보세요.

S# 10 지하철, 밤

은정의 페이스북 보는 수원. 집, 사원증사진과 함께 ‘내 집이 생겼다. 부모님 감사해요♥’, ‘첫날부터 야근. 나 다시 돌아갈래.’ 올라와 있다.

S# 11 편의점 앞, 밤.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수원에게 전화 걸려온다. ‘해원이 담임선생님’

수원 네 선생님.

담임 밤늦게 죄송합니다. 해원이 급식비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수원 (의아한) 네? 그게 왜요?

S# 12 길, 밤.

담임 (E) 해원이 한 달 전에 자퇴했어요.

수원이 빠르게 달려간다. 친구들과 걸어오는 해원, 어두운 표정으로 수원의 문잘 보고 있다. 해원의 뺨을 때리는 수원.

해원 (짐작했다는 듯이) 뭐야?

수원 (침착한) 담임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왜 그랬어?

해원 (한숨 쉬는, 당당한) 그게 뭐. 내 학교 내가 때려 치겠다는데 왜?

수원 네가 가수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근데 학교는 졸업해야 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까? 그저 세상이 만만하지?

해원 (코웃음 치며)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 꾸역꾸역 졸업한 언닌 세상이 어때? 취직은 안 되지 알바는 힘들지. (정색하며) 아주 꽃밭이겠어.

수원 (자존심상하는) 너 말 진짜 이쁘게 한다. 나는 지금 너 때문에

해원 (O. L) 내 핑계 대지마! 니가 새벽마다 알바해서 학교 보내준 거, 나 하나도 안 고마워. 누가 보내 달랬어? 차라리 그 돈으로 보컬학원이나 좀 보내주지 그랬어. 누구처럼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찌질대며 살지 않게.

수원 (기가 막힌) 야, 너!

해원 난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절대 언니처럼 살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언닌 나 상관 말고, (핸드폰 시계 보여주며) 편의점이나 가. 늦었다. (하고 가는)

수원 (울먹이며, 큰소리로) 나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넌 내 기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나도 싫어! 살기 싫다고!

해원 따라가려다 주위 시선 느끼는 수원.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S# 13 마포대교, 밤.

뛰어가며 통화중인 수원.

수원 네 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한 5분이면 도착하, 여보세요? 점장님? (끊긴 전화 보며) 됐다, 5분은 무슨.

힘없이 걸어가던 수원이 쪼그려 앉는다. 문자오는 소리, 보면 은정의 문자. ‘내일 집들이 올래?’ 수원, 고개 들면 다리에 적힌 ‘이렇게 사는 내가 가엽지 않은가요’ 보인다. 영영 운다.

S# 14 거실, 낮.

탁자 앞에 선 수원이 벽에 걸린 수경(46)의 대형가족사진을 보고 있다. 손에 든 통장과 도장 짝 쥐는 수원.

인서트/ 길, 밤. 회상.

뛰어가던 수원, 전봇대에 붙은 아파트 광고 전단지 발견하고 멈춘다. 고민하던 수원 다시 뛰어가고, 전단지 뜯긴 자국만 남아있다.

수원 (E) 전부 해지해주세요.

S# 15 은행, 낮. 현재.

돈 봉투 꺼안고 통장 열어보는 수원. 잔고가 0이다.

수원 이모 집에 있는 것도 눈치 보였고, 우리도 이제 다 컸으니까. (돈 봉투 보며) 앞으로도 거지같은 내 인생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 (전화벨소리, 받는) 응, 이모. 내가 지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하며 나가는)

S# 16 아파트 계단, 저녁.

텅 빈 봉지를 놓고 계단에 앉는 수원. 통화하고 있다.

남자 (E) 어디가도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사요. 땡잡으신 겁니다.

수원 이모, 무슨 일인지는 묻지 마요. 그냥 잘했다고 해줘. (잠시 쉬고) 나 잘한 거 맞지? (웃으며) 뭐가 이상해. 그런 게 있어. 응, 나 지금 들어가. (끊는)

해원에게 전화하려다 마는 수원.

S# 17 방, 밤.

수원이 벽걸이 달력 30일에 ‘집 보러 가는 날’ 쓴다. 책상에 앉아 계약서

읽는 수원.

S# 18 현관, 낮.

수원, 신발을 신으며 전화를 건다.

응답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오니

수원 왜 안 받아...(1번 누르는) 저 오늘 집 보기로 한 사람인데요, 집주인 번호 좀 다시 알려주세요. 지금 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든요. (손톱 물어뜯는)

S# 19 길, 낮.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수원. 전화 계속 걸지만 받지 않는. 아파트 도착. 포크레인 소리. 돌 깨지는 소리. 인부들 말소리와 함께 철거중인 아파트. 수원이 서서히 멈춰 선다. 문자 오는 소리에 급하게 보면, 면접탈락소식. 주저 앉는 수원.

S# 20 차도 옆 길가, 밤.

수원 (N) 항상 생각해왔다. 편의점 알바를 했던 새벽마다, 면접에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답이 나지 않을 때마다. 그냥 죽어버릴까, 하고.

수원이 눈물 흘리며 걷고 있다. 자동차 위협적으로 지나다닌다.

수원 (하늘 보며, 느리게) 캄캄해.. 별이 하나도 없어.

핸드폰 벨소리 울리고, 수원이 가방을 떨어뜨린다. 차도로 걷기 시작하는 수원.

S# 21 거실, 밤.

수경이 전화 걸고 있고 해원이 노트북으로 수원의 소설을 읽고 있다.

수경 애가 왜 이렇게 전할 안 받지.. (돌아보며) 해원아 네가 전화 좀

해원 (O. L) 이모. (망설이며) 내가 잘못했나?

수경 너네 또 싸웠니?

해원 (말없이 노트북 보는)

S# 22 차도, 밤.

자동차 경적소리에 수원이 뒷걸음친다. 수원의 앞을 뺨 지나가는 자동차.

수원 (울며, 천천히)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더 이상은, 난..

수원이 차도 가운데 선다. 자동차 마주 달려오고, 손에 든 핸드폰 떨어진다.

수원 (눈감는) 이렇게 살긴 싫어..

핸드폰 액정에 금간다. 자동차 경적소리, 브레이크소리.

S# 23 침실, 낮.

침대에 누워있는 수원(29). 천천히 눈뜨자 천장만 보인다. 눈 깜빡거리는.

수원 (벌떡 앉고) 뭐야, 꿈이었어? (둘러보면, 넓고 좋은 방) 여기 어디지?

수원이 일어나 달력을 본다. 3년 후 달력.

수원 (멍한) 이게 뭐야..?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수원.

S# 24 거실, 낮.

해원(21)과 수경(49)이 중앙에 케이크와 배달음식 한가득 놓는다. 수원이 벽에 걸린 대형사진 보고 있다. 해원이 왼쪽에 붙어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해원 (탕수육 뜯으며) 언니, 거기서 뭐해? (놀리듯) 주인공이라 안 돕겠다 이거지?

수경 (케이크에 초 꽂으며) 초는 두 개 꽂아야겠지? (돌아보며) 두 번째 출판이니까.

수원 (혼란스러운, 작게) 잠깐만.

해원 (O. L) 물론! 두 번째 출판은 내일이지만~ (탕수육 입에 쏙 넣고) 내일은 형부와 둘만의 (윙크) 핫한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이모랑 내가 양보하는 거야.

수경 그럼~ (속삭이듯) 얼마나 뜨거웠는지 꼭 말해주고. (하고 해원과 크게 웃는)
수원 (큰소리로) 그만해! 대체 이게 뭐야? 여긴, 여긴 우리 집 아니야. 달력은 누가 저걸 갖다놨어? 왜 이 상황이 나만 이상해? 난 분명히 어제 (수경과 해원의 당황한 시선 느끼고 이마 짚는)

S# 25 화장실, 낮.

수원이 세수 하고 있다. 세면대에 엎드려 한숨 쉬는 수원. 천천히 고개 드는데 거울에 수원 비치지 않는다. 소리 지르는 수원.

S# 26 거실, 낮.

물기도 안 닦은 수원이 뛰어와 대형사진을 본다. 사진 밑에 ‘언니랑 나랑’ 적혀있다.

수경 (걱정스러운) 수원아.
수원 사진이 이상해.
해원 언니만 잘나왔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수원 얼굴 만지는) 열은 없는데..
수원 (사진의 빈 공간 쳐다보며, 혼잣말로) 여기 내가 있다고?

(E) 초인종 소리

S# 27 집 앞, 낮.

수원이 조금 열린 현관문으로 밖의 청우(29)와 수경을 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는 청우와 수경.

청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요?
수경 (현관문 안쪽을 힐끔 보는) 어쨌든 오늘은 청우 널 만날 수 없대. 애가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청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왔는데, 괜히 왔네요. (걱정되는) 아픈 건 아니죠?
수경 (끄덕이며) 적어도 내가 보기엔. 네 말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요즘 며칠 잠도 잘 못 잤으니까. (미안한) 그냥 가서 어떡해?
청우 저도 어차피 잠깐 도망쳐 온 거라, 병원 들어가 봐야 해요. 수원이 꼭 쉬게 두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수경 (고개 끄덕이는)
청우 (안쪽의 수원과 눈 마주치고 눈인사하는)

S# 28 침실, 밤.

불 꺼진 방. 무릎을 안고 침대에 앉아있던 수원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떠올라
 흠칫한다. 수경이 따듯한 우유와 책을 가지고 와 옆에 앉는다.

수경 (우유 건네며) 마셔.

수원 (망설이다 받는다)

수경 수원이 니가 했던 말 기억나?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말.

수원 (말없이 머그잔 만지는)

수경 이제야 별을 볼 수 있게 됐잖아. 그동안 한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수원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건 내가 아닌데, 나만..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이모,
 (달력 가리키며) 지금 달력이 저건 게 제일 이상해. 그러니까 (망설이는) 삼년
 전 기억나?

수경 (침대에 누우며) 그럼, 나지. 정말 힘들었잖아, 너. 그래서 이제야 별 좀 보려
 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이상해. 지금을 위해서 버텼잖아. 맘 편히 즐길 때야,
 이제. (책 내려놓는다) 잘 읽었어.

수원 (책 펴보는, 저자에 있는 수원 이름 만지는) 내 책..

수경 (눈 감고 잘 자세 취하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수원아. 네가 정말 원했던
 일이잖아. 즐겨야지.

수원 (달력 보는) 내가 원했던 일..

수원, 책을 몇 장 넘긴다. 머그잔을 탁자에 놓으려다 놓친다. 깨지는 머그잔.

S# 29 웨딩숍

소파에 앉아있는 수원(34)이 깜짝 놀라 눈 뜬다. 앞에 있는 커튼 양옆으로 열
 리고 텍시도 입은 청우(34) 나타난다. 수원 눈 커진다. 옆에서 멍있다며 난리
 인 여직원들.

청우 (부끄러운, 머리 만지다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어때? 이..상한가?

수원 (혼란스러운) 또야..

청우 수원아?

수원, 별떡 일어나 나간다. 놀라 따라가는 청우. 수원을 붙잡는다.

청우 (수원의 어깨 잡는) 왜 그래, 수원아. 어디 아파?

수원 그게..
 수경 (E) 정말 힘들었잖아, 너. 맘 편히 즐길 때야, 이제.
 청우 팬찮아?
 수경 (E) 네가 정말 원했던 일이잖아.
 수원 (결심한 듯이) 네. 팬찮아요. (O. L)

스크를 열리는 커튼. A라인 웨딩드레스 입은 수원 천천히 고개 든다. 창우
 입 떡 벌리고 황홀하게 쳐다본다.

청우 수원아. (수원이 쳐다보면) 너 진짜 예쁘다. (활짝 웃는)
 수원 (어색한, 부끄러운) 고마워요. 아, 저 다음 거 입어 봐야 해서. (커튼 닫는)
 청우 (실실 웃으며) 아 좋다. (잠시 생각하다 인상 찌푸리는) 사진을 안 찍었네.
 (핸드폰 꺼내는)
 여직원 (E) 신부님 준비되었습니다.
 청우 (작게) 빨리빨리빨리빨리.. (핸드폰 카메라 켜지는) 저도 준비됐습니다.

커튼 열리고 창우와 수원 마주본다.

S# 30 창우 집 거실, 저녁.

식탁에 차려진 맛있는 밥상. 창우가 가운데 찌개 올려놓는다. 박수치는 수
 원.

수원 잘 먹을게요.
 청우 (장난스럽게) 왜 갑자기 존댓말을 쓰실까, 우리 작가님.
 수원 (당황한) 어? 아니 그냥, 부부끼리 존대하면 잘 안 싸운다더라. 그래서.
 청우 (행복한, 사랑스럽게 보는) 그렇구나. (느끼하게) 맛있게 드시오, 부인.
 수원 (웃음 터진) 아 이상해~ (청우 계속 장난치면, 웃으며) 하지마~
 서로 먹여주며 웃다가 조금씩 표정 어두워지는 수원.
 수원 (E) 행복하면 할수록, 두려움도 커져갔다.

인서트/ 웨딩드레스 입은 수원 고개 돌리면 거울 있다. 수원의 모습만 안
 보이는.

S# 31 공원, 낮.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수원에게 종이 건네주는. 보면 창우와 수원의 커

플 그림.

수원 (돈 건네며 꾸벅) 감사합니다.

돌아서 팔짱끼고 걷는 두 사람.

청우 근데 갑자기 웬 초상화? 자기 이런 거 좋아했어?

수원 (그림 보며) 그런 건 아닌데, (그림 속 수원 만져보는) 좀 보고 싶어져서.
 지금의 나는 어떤가. 여전히 웃을 때 못생겼을까.

청우 (웃으며) 못생기긴. 곧 생길 우리 아기가 웃겠다.

수원 아이? (멈춰서는)

청우 난 딸이 좋은데. (걸으려다가, 멈춘 수원 보는) 뭐해?

수원, 초상화 본다. 불안한 표정.

S# 32 신부대기실, 낮.

수원, 의자에 앉아 있다. 손거울 쥐고 있는. 벌떡 일어나 가방 뒤지는 수원

수원 (초상화 꺼내는)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초상화 껴안는) 괜찮아..

여직원 (문 열고) 신부님. (문 옆으로 비켜서는)

수원, 초상화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 나간다. 여직원이 드레스 정리한다.

수원 나 언제 보여요?

여직원 정말 예쁘세요. 거울로 한번 보시겠어요?

수원, 무의식적으로 손거울 본다. 자신의 모습 보이지 않아 놀라 손거울 던지듯 떨어뜨린다. 깨지는 손거울.

S# 33 공개홀, 저녁

정아(여, 8) 피아노 연주 끝나고, 일어나서 인사 후 지팡이 두드리며 나간다. 수원(42)과 청우(42) 관람석에 앉아있고 수원 눈감고 있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눈뜨는 수원. 주위 둘러보면 박수치는 사람들 뿐. 손 떨며 입 막는 수원.

S# 34 정아 방, 낮.

‘정아 공주님’ 문패 걸려있는 방문 열리면 정아가 피아노 치고 있다. 수원이 문에 기대어 보고 있다.

수원 우리 정아가 음악 좋아하는 건 해원일 닮았나봐.

정아 (돌아보며, 눈에 초점 없는) 엄마?

수원 (정아 앞에 무릎 꿇고 손잡는) 정아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정아 (방긋 웃는) 나도 미안. 엄마 슬프게 해서 미안해. 근데 있지, (안아주며)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피아노도 있잖아. 난 엄마가 책임어줄 땐 꽃밭에 누워있고, 피아노를 칠 땐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녀. 나는 진짜 진짜 행복해.

수원 (울먹이며) 엄마보다 낫네. 이렇게 예쁜 딸이 기다리고 있는 걸, 엄마 왜 몰랐을까. (세게 안는)

S# 35 거실, 밤.

정아가 이불 덮고 자고 있다. 옆에 점자책 놓여있는. 수원이 가족 앨범 넘겨보고 있다. 사진마다 수원이 있을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에 눈물 떨어진다. 계속 넘기는.

수원 (E)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는 것조차 겁이 났다. 나는 몇 년 단위로 뛰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S# 36 현관

청우 들어오자 수원이 다가가 안는다. 허리 감싸 안고 들어오려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 정아가 놀라 서있고 그 옆에 컵 깨져있다.

청우 (놀란) 정아야!

멍하게 서서 돌아보는 수원.

S# 37 침실, 아침.

수원 (N) (좀 더 나이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수원(55)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 의자를 두고 청우(55) 앉아있다. 청우 혼자 말하는.

청우 (미소 띠며) 당신 책에 내 이름 넣어주겠다더니, 결국 주인공 친구 역할이나 주고 말이야. 결혼식 때 왔던 그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자식 이름은 딱하니 주인공 자리 내줬으면서. 응? (수원 앞에 손 휘휘 저으며) 여보, 자요?
수원 (눈 감고 있는) 더..애기해줘.
청우 (부끄러운) 흠, 제정신 아니었지. 당신도 봤잖아. 환자들 신는 슬리퍼 신고 나갔던 거. 영화에 누가 나왔는지도 못 봤어. 대신 거기 나왔던 프리포즈 장면은 내가 확실히 봐봤지. 결국 당신한테 써먹었잖아. (갑자기 화나는) 근데 당신은 그 결혼식에 그 놈을 불러서
수원 (O. L) (눈 뜨며, 떨리는 목소리) 여보, 만약 내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우리 정아는 어떻게? 정아는 누가 낳아줘?
청우 (당황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수원 (침대에서 내려오는) 다 놓쳐버렸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스물여섯 살의 당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결혼식 때 난 얼마나 예뻐졌을까. 정아..(울컥하는) 정아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은? 입학식 날, 난 우리 정아한테 어떤 옷을 입혔지? 당신과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늙어갔을까! (흐느껴 우는) 나는 해원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 (발악하듯) 우리 이모 영정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가족사진을 만지며) 나는 내 얼굴도 못봐.. (비틀거리는)
청우 (수원 붙잡으며) 여보, 진정해. 왜 이러는 거야.
수원 (주저앉는) 언제 시간이 지나갈까 너무 두려워..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것이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조금 더 천천히.. 살고 싶어..(바닥에 엎드리는)

수원을 일으키던 청우가 가족사진을 친다. 떨어지는 액자.

S# 38 공원, 낮.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원(66)이 눈을 뜬다. 솜사탕을 든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이 보인다. 솜사탕 위로 떨어지는 눈물. 흐느끼다 솜사탕을 떨어뜨리는 수원.

청우 (E) 여보, 왜 그래요?

천천히 일어나 뒤도는 수원의 얼굴.

S# 39 차도, 밤.

눈에 눈물고인 수원(26)의 직전에 멈춰있는 자동차. 운전석에 놀란 표정의 청우(26)도 멈춰있다.

수원 (청우보고 경악한) 여보.. (흐느끼는) 미안해요.. 안돼.. 정아야.. (뒷걸음치는, 바닥으로 눈물 떨어지는)

차에 부딪히는 소리, 응급차 사이렌 소리. 동시에 까만 하늘 보인다. 구석에 별 하나 밝게 빛나고 있다.

수경 (E,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뻘-) 수원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들뜬) 있잖아, 너 이제 새벽에 힘들게 편의점 안 나가도 돼.

인서트/ 해원이 공모전에 수원의 소설 메일로 보낸다. 씩 웃는 해원.

수경 (E) 이모 집 뒤에 도서관 알지? 거기 사서자리 하나 났는데 이모가 맡아놔어. 아 참, 그리고.

사고 난 자동차 문 덜컥 열린다. 인턴 명찰 단 청우가 비틀거리며 내린 뒤 수원 보고 주저앉는다.

수경 (E) 너 내일 잠깐 이모 병원으로 와.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

누워있는 수원 손끝에 깨진 핸드폰 보인다. 핸드폰 잡으려다 멈추는 수원의 손.

수경 (E) 내일보자. 우리 딸 사랑해.

사고 현장 풀 샷. 엔딩.

